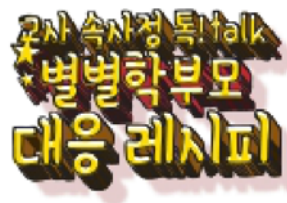




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책임주세요.



1. 자녀 교육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학부모 유형

- 자녀에게 무관심한 학부모 :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에게 무관심함
-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학부모 :
자녀에게 휘둘리고,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어찌 할 바를 몰라 교사에게 도움을 청함

2. 무관심한 학부모와 동행하기

- 연락하기
 - 연락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되더라도 바쁘다며 상담을 회피함
 -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함
 -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학부모의 미안한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됨
 - 학부모의 퇴근이 늦는다면 회사 근처에 가서 만나는 것도 한 방법임
 -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연락 지속하기
-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
 - 문제 행동뿐 아니라 아이의 긍정적인 면까지 함께 이야기하여 교사가 아이를 다각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인식시키기
- 당황하지 않기 & 인내하며 꾸준히 동행하기
 - 무관심한 학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수 있음
 - 일반적인 학부모의 반응과 양상이 다르며 대답이 없거나 단답식으로 말하거나 아이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음
 - 당황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며 학부모의 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
 - 아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연락하여 학부모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음

3. 권위 상실 학부모 격려하기

- 교사의 상담 요청에 잘 응하는 편으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하나 그것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함
- 격려와 권위 부여가 필요함
-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
 - 상담에 온 학부모의 걱정스러운 마음 알아주기
 - 긍정적인 면과 함께 자녀의 문제 행동 이야기함
 - 이때 권위 상실 학부모는 집에서도 아이 때문에 힘들다며 어려움을 종종 토로함
 - 상담 목표 설정
 - ① 학교에서의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
 - ② 가정에서 학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
- 가이드라인 정하기
 - 원인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기
 - 반드시 교사, 학부모, 아이가 함께 가이드라인 정하기(부부가 둘 다 함께이면 더 좋음)
 - 교사가 함께 있으므로 상식 선에서 가이드라인의 조율이 가능하고, 아이가 함께 하므로 이후 아이의 더 나은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음
 - 아이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도 선을 지켜야 함
 - 너무 많은 것을 정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정해야 함
- 격려하기
 -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아이와 학부모 모두를 아낌없이 격려하기

4. 아이와 일대일의 관계 맺기

-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되 선을 지켜 아이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어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함